

남재현 해양수산부 차관, 충남지역 고수온 대응 현장점검

- 천수만 해상 가두리, 육상 수조식 양식장 피해 최소화를 위한 상황 점검

남재현 해양수산부 차관은 8월 6일(목) 충청남도 태안지역 해상 가두리 양식장 및 육상 수조식 양식장을 각각 방문하여 고수온에 따른 재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어업인을 격려했다.

이번 현장점검은 최근 연이은 폭염으로 지난 8월 3일 기준 고수온 경보 발효(28℃ 이상 3일 지속) 해역이 6개에서 17개 해역으로 증가하였으며, 충남 지역에서도 양식장 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있어 피해상황 및 예방·대응체계 구축 현황 점검을 위해 이루어졌다.

남 차관은 이 자리에서 “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수온 상승 지역이 확대되고 있어 현장에서 치밀한 사전 대응이 더욱 중요한 시점”이라며, “해수부와 지방정부, 어업인이 서로 협력해 신속히 대응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강조하였다.

담당 부서	어촌양식정책관	책임자	과 장	정기원 (051-773-5610)
	어촌양식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김 환 (051-773-5392)